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11, 조약, 토라, 10계명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글쎄요, 오늘의 단어는 Boker Tov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 앉아 시작하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손을 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시에 여러분의 형제가 되라는 도전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최소한 15~20명의 사람들이 누락되었기 때문 입니다 . 나도 알아, 그거 충격적이지 않아? 이 수업에는 실제로 45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45명이 없습니다 . 그러니 잠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도와주십시오. 비록 여기 의자가 침대만큼 편안하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그럼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나중에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Ki Tov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하는지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키 토브 아도나이 레오람 하도 . 키 토브 아도나이 레오람 하도 .
베아드 도르 , 베아도르 , 베아드 도르 , 베아도르 , 에무나토 .
키 토브 아도나이 레오람 하도 . 키 토브 아도나이 레오람 하도 .
베아드 도르 , 베아도르 , 베아드 도르 , 베아도르 , 에무나토 .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물론 이것은 시편 100편 5

절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니까? 이 노래는 주님께 즐거운 소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아침에 주님께 즐거운 소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로 함께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단지 형식이나 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우주의 주인, 곧 바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 마음이 활기를 띠고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그들에게 속히 회복과 온전한 건강을 가져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쌓이는 일의 양을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서로를 돕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당신을 아는 법, 그리고 당신을 더 잘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토라(Torah)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 11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가치와 아름다움, 효능에 관한 길고 길고 긴 시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토론할 때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토라의 개념을 논의하기 시작할 때 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서술에서 토라로의 전환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토라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토라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그것이 토라의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과 실제로 다음 며칠 동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이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간단한 시각적 관광을 하고 이집트와 갈대 바다를 떠나 전통적인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기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번에 지도를 볼 때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음을 지적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 저는 전통적인 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갈대 바다를 건너 시나이 반도의 남서쪽, 실제로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도 남쪽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아투르 의 오아시스 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우 황량한 지역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물과 관련하여 직면했던 이러한 어려움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쓴 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나이 반도 해안을 따라 있는 지역에서 방향을 돌려 넓은 계곡과 와디 지역을 따라 내륙으로 조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마침내 순례자의 길을 따라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향하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물론, 재미있는 부분은 일출 시간에 그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내산에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꽤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신부도 산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진을 좋아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아주 자세히 보면 길고 흰 수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70대, 80대인 거죠.

여기에서 그는 아침에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모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는 횃수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러 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는 당시 80 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것이 일종의 재미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향해 계속해서 내려다보면 거기에 갈라진 틈을 통해 영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성 캐서린 수도원입니다.

미술사와 관련하여 무엇이든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미술사학자이신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 캐서린 성당이나 산타 카타리나 성당이 세계 최고의 성화 컬렉션 중 하나인 그리스 정교회 성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매우 고립된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상파괴 운동이 돌고 있을 때, 성상파괴는 아이콘을 갖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콘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산타 카타리나를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막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이로운 아이콘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여기 전체가 여기를 따라 있어요.

또한 그 도서관에서 몇 가지 훌륭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시내 사본일 것입니다. 이 사본은 발견 뒤에 오랜 이야기가 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승려들이 그것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슬픈 점은 더 이상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서관 1층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산타 카타리나를 방문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중동 연구의 일환으로 시나이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문의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출애굽기 19장은 실제로 우리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잠시 멈춰서 출애굽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1장, 특히 15장까지, 그리고 바다에서 시내산 기슭까지 트레킹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단계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토라 자체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주목하여 19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행한 일 곧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도 보았느니라. 자, 알았으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온전히 순종하고 앞으로 올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나라 중에서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리라.

온 땅이 다 내 것임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지적했듯이, 베드로는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본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서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을 구출하고 속량하고 해방시킨 그들의 주권자로서 그분은 이제 그들과 주권 계약, 종주 계약, 종주권 조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행 중 하나에서 산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백성을 준비시키고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들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관계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적 취향과 성적 표현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특히 18장을 읽어보면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날에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산 위에 내려갈 때 순결한 상태가 되도록 그것을 삼가야 합니다. 내가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는 중재자로서 모세를 위아래로 위 아래로 두고 있으며, 우리는 20장 끝까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구약전서를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에는 멋진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20장부터 시작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약간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 이르면 그것들은 정말 흐릿해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이 중 일부를 생생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신 것의 일부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방금 겪은 이야기는 그들에게 토라,

언약, 규정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창세기에서 돌아볼 때마다 누군가가 함께 자면 안 되는 다른 누군가와 자고 있는 것 같다고 나에게 언급했습니다.

응, 맞아.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토라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상황이 계속해서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배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토라(Torah)라고 불리는 것에서 광범위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토라의 의미 지침 측면에서 토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그 토라는 지시와 율법을 서술과 함께 결합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실제로 독특합니다.

더 넓은 문화권의 나머지 문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나요? 질문? 우리는 어떻게 지내나요? 추운 금요일이죠? 조금 더 진행해보자. 일부 정의.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고, 두 번째로는 젊은 피가 말하는 것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젊은 혈액을 검토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먼저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시내산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아직 이 정의를 외우지 않았다면 외우고 싶을 것입니다.

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는 양측의 의무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의무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무는 토라나 언약, 죄송합니다. 토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재도 성립하는데 제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말을 한 것 같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히브리어 토라(Torah)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토라는 지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이를 광범위하게 지침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언약의 맥락에서 우리는 언약을 받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 대한 진술로서 토라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할 점은 피의 두 가지 용어. Epidictic은 첫 번째로, 단순히 절대 명령을 의미합니다.

자, 아포딕 토라의 고전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책들에 있는 유일한 묵시적 토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23장에는 거기에 Epidictic Torah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레위기 19장은 Epidictic Torah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대조적으로, 또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결의론적 토라(Casuistic Torah)입니다. 이것은 특히 제가 방금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이 판례법임을 나타냅니다. 조건부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위반을 저지른다면 이는 그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는 두 남자가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리고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건 그렇고, 거기에는 복수형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참을 것이고 특별한 피해가 있었다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등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주님의 뜻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판례법, 즉 결의주의적 토라(Casuistic Torah)의 경우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oungblood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록하고 싶은 구약성서의 평행선에도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여러분의 관심을 그들에게 돌리기 위해 그것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초기의 법률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Ur-Namu Code라고도 불리는 Shulgi는 기원전 3천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철자법에 따라 함무라비에 P가 들어가고 BP는 때때로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기원전 18세기의 일입니다. 둘 다 출애굽 이전에 시내산 행사에서 토라를 전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전임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은 시내산 언약과 비교적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다. 히타이트 조약 중 약 3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히타이트 제국은 현재의 터키 전체 지역입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제국은 특정 지점에서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투의 결과로 그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 민족, 국적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그 형태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은 헛 족속 조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고전적인 형식이며, 신명기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읽은 서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매우 짧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역사적 프롤로그: 히타이트 조약에서는 종주국,

주권자 또는 왕이 조약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행한 일에 대해 길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걸 했어, 이걸 했어, 이걸 했어, 이렇게 했으니 너희는 나에게 감사하고 순종해야 해, 알겠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우리는 그 내용을 읽습니다. 나는 독수리 날개로 너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 언약을 지키라.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집,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주 짧은 역사의 프롤로그지만,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적인 규정, 구체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장면 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일반적인 규정들이다. 도덕적인 토라는 오늘 조금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하여 노예를 대하는 법과 노예제도에 관한 몇 가지 성별 문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면서 우상 숭배적이거나 주변의 이교 문화와 유사한 어떤 종류의 관행에도 가담하지 말라는 강한 훈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많은 특정 규정에서는 심지어 아이를 모유에 삼지 말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꽤 구체적이죠? 그 후에는 증인이 있습니다. 이제 히타이트 조약에는 많은 신들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다신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언약 형태에서 누가, 무엇을 증거로 불러일으키는가? 읽은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든 선지자들 속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고 찾아보고, 다음에 선지서를 읽기

시작하면 선지자가 '내가 하늘과 땅을 나의 증인으로 부른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언약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는 소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증인이군요. 저주와 축복.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쁜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흥미롭게도 땅의 맥락에서 전개됩니다. 기억하세요, 땅은 일종의 토지 부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라 곧 언약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7년마다, 신명기 31장, 7년마다 초막절에 그것을 꺼내어 백성에게 읽을 수 있도록 어딘가에 두는 것입니다. , 좋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히타이트 조약 양식에서도 발견됩니다. 너도 나와 함께 있니? 중요한 평행선.

Youngblood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위해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언약 사업, 조약 사업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병행 학습 가이드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숙한 형태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지만, 거기에 많은 의미, 심오한 의미, 영원히 적절한 의미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란 것이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정치적인 것들과 문서들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계시만 받는 멍청한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배경의 일부이자 핵심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40년을 이집트 상황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이런 종류의 글을 쓸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메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분야에 계속 종사한다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것 중 하나는 모세가 이 내용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일련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즉 기원전 900년 이후를 의미하는 첫 번째 천년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조약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시리아 조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글썬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역사적 프롤로그는 제가 앞에서 강조한 이유입니다. 역사적 프롤로그, 신들이 무엇을 위해 했는지, 죄송합니다. 신들이 무엇을 위해 했는지, 통치자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 했는지는 역사적 프롤로그이며, 그것은 고마워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두 번째 천년 히타이트 조약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앗시리아 조약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친 앗수르 제국의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보게 될 앗수르인들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벗겨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기둥에 찢렸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부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럴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오경이 저절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암시일 뿐입니다 . 어쩌면 모세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험거인 아이디어죠? 나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계속하자. 우리는 다른 할 일이 있습니다.

토라의 목적. 이것은 목적의 완전한 목록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확장하고, 살을 붙이고,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세 개는 함께 사용되므로 모두 꺼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직 4개는 하지 말자. 토라를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좋은 감각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자, 토라를 읽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자비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읽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월슨 박사님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면 어딘가에서 설교를 준비하시나요? 누구든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 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아니면 그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책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인가요? 아, 기분 나쁜 아침이군요. 응, 크리스찬.

메리, 미안해요. 좋아, 그래서 당신은 그가 가지고 있고 통제하는 힘, 주권적 통제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당신은 그러한 특성에 거룩함도 포함시키게 될 것입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좋은 시작이네요. 케일린. 네, 여기에 너무 많은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을 꽤 높게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613, 전통적인 랍비 유대교에 따르면 613개의 율법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아주 나쁜 비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가져갈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 선생님, 교수,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가 당신에게 부과하는 온갖 종류의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강사의 성격에 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쉬운 A를 받고 일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압도적인 수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궁핍한지, 죄가 얼마나 가라앉았는지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설 때마다 당신은 토라의 거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은 바로 당신을 향해 빛나고 있으며, 형제여, 내가 부족한가를 당신은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선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토라와 관련하여 여기에도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만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는 구별되었으므로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일부이자 소포입니다. 글쎄, 내가 말했듯이 바울은 토라가 우리를 위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로마서에서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교사는 바울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절실히 궁핍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교회에서 성장했다면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토라는 다른 일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세기에 걸쳐 유대교에 관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유대교가 주변 문화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차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셔법 등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을 구별하고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적절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구별합니다. 안식일은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요점이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구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들은 정말로 구별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히 순종하지 않았으며, 주변 문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 수준으로 전략합니다. 위치에 따라 처음 네 가지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매우 실용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라는 필수이고 법도 필요합니다. 단지 사회 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Gordon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음, 그건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Gordon에는 규칙이 있으므로 실제로 우리는 적절하게
 기능하고 항상 서로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운전에는 규칙이
 있고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기준은 깨졌습니다.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1
 절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토라는 지금 여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말하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저는 단지 10:1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나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림자에 대한 개념을 꽤 많이 사용했는데, 아마도
 당신이 Dr. Green과 함께 신약성경을 읽었을 때 나도 그 개념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위해 제정하신 시스템, 즉 정의, 정의를
 실행하는 방법, 그러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

모든 것이 실제로 바로잡힐 때입니다. 거기에는 샬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단어 뒤에 있는 히브리어 동사 형태가
 과로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우리는 지금 샬롬을 많이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전문 용어이자 복음주의 전문 용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불하다, 알겠습니다, 지불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갚기 위해. 때때로 그것은 배상을 하려는 전체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역에서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샬롬은 그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그것에 관해 할 말이 더 많이 있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나요? 자, 다음 자료 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다른 수업을 들을 때 누군가가 토라를 더 이상 세 가지 범주로 나누지 않는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글썄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돕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나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를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적 범주에 대한 감각도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우리는 늪에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글을 읽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범주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중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에 다공성 경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범주 중 일부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덕적인 토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거기에 윤리적인 것도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단어를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 슬래시 윤리적 토라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의지, 존재 자체를 요구하는 지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들이 깨졌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 어떤 경우에는 십계명 중 처음 두 계명을 알고 있고 양심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를 결코 법정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아야, 그건 도덕적인 토라야. 이제 십계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이 도덕적인 토라의 다양한 측면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범주인 시민 슬래시 소셜(civil slash social)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그 목적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가 분명히 표현한 네 번째 목적, 혹은 생각해보면 다섯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뿐입니다. 시민사회 토라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 행동을 구조화하세요. 성별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예인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를 다루는 방법, 뇌물을 받지 않는 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행동을 구조화하고, 여기에 핵심이 있으며, 적절한 정의 집행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다면, 또는 누군가가 실제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조금 다르게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시민사회 토라 구조로 가서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음, 이것이 명백한 살인이었는지, 종신형을 받거나 살인을 하였을 경우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는 모두 광범위한 시민 사회 범주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지적한 것처럼, 도덕적인 토라가 시민사회와 겹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약간 다공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정의의 적절한 행정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적 토라,

의식적 토라, 두 가지가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선,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체화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식 토라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이러한 측면 중 하나와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수요일에 예배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연결을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토라 의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과 신성한 공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성막과 희생의 동물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요일에 비누 상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식의식을 생각하고 싶다면 신성한 공간과 신성한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에게 선물일 뿐 아니라 의식의식인 토라는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읽으면서 곰팡이와 곰팡이, 신체 배출물에 관해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맵소사, 그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슨 박사를 어느 시점에 만난 적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이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교에는 모든 것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모든 것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심지어 그 능력에서도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좋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토라의 매우 복잡한 문제 전체에 대해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기 전에 질문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나요? 좋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 십계명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약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어서 당면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학부생이었던 남편이 위스콘신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인 벨로이트 대학에 다녔는데, 그게 아주 오래 전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당신의 할아버지일 만큼 나이가 많다는 건 알지만, 괜찮아요.

그는 벨로이트 대학에 다녔는데, 그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문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십계명을 외우게 하셨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법칙은 보편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외워야 했습니다. 글썄요, 그건 다 좋은 일이고, 그 때가 1960년대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부터 원로목사가 십계명을 주제로 일련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설교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리즈를 소개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 중 하나는 파크 스트리트의

장관급 직원을 통해 순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파크 스트리트에는 장관급 직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으로 가서 노크하고, 노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십계명을 암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 중 누구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든 휴겐버거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십계명을 기억조차 할 수 없었던 당혹스러운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 자,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매달리십시오. 시편이나 복음서 같은 것을 모두 집어들지 않으면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 금요일이잖아, 그렇지? 십계명은 아포딕 토라(Torah)이다.

주권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에 나오는 더 넓은 내용과 함께 십계명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 중 많은 것에 대한 형벌이 결국 사형으로 끝났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만큼 그들이 중요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에 참고 자료 중 하나를 주었으니 유사점도 볼 수 있지만 Mark 12의 내용이 꽤 좋습니다

가장 위대한 법은 무엇이었는가?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당신은 613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건가요?
예수님은 지혜롭게도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는 한 개를 준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 그러므로 인간 책임의 두

가지 보완적인 측면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내용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좋아요, 계속할 준비가 됐나요? 종종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간증판이 두 개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증에는 두 개의 정제가 있습니다. 글쎄, 보통 우리는 이런 종류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렘브란트는 그곳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그의 판 중 하나가 있는데 그 판에는 마지막 다섯 가지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읽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리고 대부분의 예술 작품에 이 두 개의 태블릿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처음 다섯 계명은 이 계명에 있고, 둘째 다섯 계명은 저 계명에 있습니다.

그 사진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는 사람 있나요? 어서, 베카. 좋아요, 추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는 거기에 얼마나 쓰여졌는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이 겁에 질려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처음에 모세에게 했던 열마디 말만 한다고 해도 당신은 그에게 말하십시오. 응, 케이트, 훌륭해, 훌륭해.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이 히타이트 조약 전체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사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라의 두 판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한 판에는 전체 내용이 있고 다른 판에는 전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백성을 위해 보관되고, 하나는 실제로 성소에 보관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위한 궤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나머지 계명들, 혹은 모든 계명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는 로마 카톨릭 출신의 여러분이 계명을 세는 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배경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좋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건 그렇고, 이것들은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신교가 만연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애굽에서 나온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세계관을 재설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제 두 번째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집니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이는 예술 작품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시 로마 카톨릭 배경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별도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별도의 계명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별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니라.

아, 그게 무슨 문제야? 당신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것이라는 전망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들이 질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뒷주머니에 어딘가에서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까? 첼시, 당신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결혼 언약으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단 결혼한 후에 당신이 질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성별의 사람과 데이트를 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질투하지 않는다면,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어. 당신에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장난을 칠 때 질투하실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신들, 실례합니다

그의 백성은 다른 신들과 장난을 치고 있으며, 그 신들은 언약의 유대를 깨뜨리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맞습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이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사물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조작하면 원하는 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들을 구매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탐욕이 우상 숭배이며 우리 모두가 그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힘을 주려고 너무 많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대에 걸친 형벌을 볼 때 죄악을 자녀 삼사 대까지 갚아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겠습니다.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실제로 해로운 패턴을 접할 때 그러한 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 기능 장애의 패턴을 깨뜨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계속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우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는 대응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은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상황이다. 이 십계명을 주신 직후,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갈 때, 성막을 짓는 방법과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는 사람들의 선동으로 산기슭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바로 그 곳에서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너무나 끔찍하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갖게 되면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도 힘든 일이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7절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게 직역한 번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NIV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고통스럽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높이지 말라.

또 그걸 원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높이지 말라. 주님께서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 영원히 공허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건 없나요? 당신이 읽은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나요, Kaylin? 좋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의도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다는 당신의 제안이 그렇습니까? 글썄요, 제 말은 제가 이 시점에서 엄청난 양의 발가락을 밟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얼마나 멀리 밀어붙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나 신의 이름이 여러분의 기도에서 심표가 될 때, 우리는 거의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때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잠시 멈춰서 주님을 거기에 모시는 것이 무엇보다 심표가 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좀 더 실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베카? 좋습니다. 신의 이름에는 실제로 힘이 있으므로 그 이름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두 가지 추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oungblood가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중 일부는 법적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옳다 옳다 하고 아니라 아니라 하여라.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이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맹세를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동등하고 아마도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서 나는 다시 현대 유대교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정통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유대인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G 슬래시 D를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가 계속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권력과 그 배후에 있는 인물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고 가볍게 말하는 입장에 있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깊은 관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고든 대학 주변을 10분 동안 걷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해 유죄입니다. 당신은 위층에 있는 남자에 대해 매우 가볍고 경솔한 암시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일은 어쩌면 이 특별한 계명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서 기숙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에 관해 우리 자신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켜봐야 합니다. 들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법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신성모독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이 특별한 계명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 계명이다. 우리가 토라 의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안식일 명령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놀라운 경계를 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출애굽기 20장을 신명기 25장과 함께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5장을 읽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이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나는 11절을 읽고 있습니다. 옛세 동안에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말했듯이 그 이유는 창조가 아니라 구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나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매우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아주 좋은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6장과 관련하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 위에 그것을 추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가 되어 온 한 무리의 노예였으며 그들에게는 7일 중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 주에 주님의 뜻대로 안식일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약간의 변동으로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족을 대표하는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글썄,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부모가 정확히 존경할 만하지 않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학대하거나, 태만하거나,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말하나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명예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게가 있다, 무겁다, 실체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공경의 일부는 단순히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고, 기능 장애와 타락한 세상에 그것이 사실인 많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모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 번, 히브리어로 명예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조항을 만들고 조항의 내용과 무게를 부여한다는 아이디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요양원에 갈 수 있도록 10,000달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물질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께서 자신 앞에서 다소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도전하실 때, 여러분이 거기 앉아 '나는 이 모든 것을 성전에 바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코르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서 마가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나는 그가 특정한 계명과 그 계명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는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어 단어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라는 뜻의 정원용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버튼은 사형과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정한 사람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를 창세기 9장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홍수 후에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릴 것임을 기억하십니까?

다음은 불륜입니다. 결혼 서약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 20분 전에 말했듯이 이것은 반성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혼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흥미로운 인터레이스가 있습니다.

절도는 일종의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그것은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맥락에서 풀릴 것이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훔쳤다면, 즉 납치를 했다면 그것도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사형이었고, 간음은 사형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을 다시 훔쳐서 그 사람을 빼앗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능력을 빼앗는다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보게 될 다른 종류의 절도에는 다른 종류의 처벌도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 자, 여기서는 분명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선언이 법원과 관련된 것은 물론 의심의 여지 없이 법원 시스템과 관련된 것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일반적인 거짓말을 대표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에 있어서 거짓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잠언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말쟁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불의 호수

거짓말도 꽤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른 많은 것들의 근본 원인은 탐욕입니다.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움켜쥐고 붙잡게 만드는 압도적인 욕망. 탐내지 말라. 음, 10시 10분, 우리는 이 마지막 작업을 조금 빠르게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시간이다. 안식일 샬롬. 월요일에 뵙겠습니다.